

# 지역 예산 확보 가고 역할 여당 후보들에 쩌를 달라

## 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와 이종호 전남지사 후보가 여당의 불모지에서 '고분 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두 자릿수 득표에 사활을 걸고 광주·전남 곳곳을 돌며 "여당 및 정부와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정원 대표와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28일 광주를 방문해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다.

서 대표는 광주시당 5층 강당에서 확대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뒤 광산구 송정시장에서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서 대표는 당직자 회의를 통해 당력을 모으고, 당원들부터 솔선수범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지원유세를 통해 "새누리당은

호남에 정성을 들여 숙원사업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도 새누리당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도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한 뒤 상가를 돌며 시민들에게 이정재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이 광주·전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 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이 10%대 득표율을 올려준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주·전남에 총 2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텃밭 민심, 과거와 다르네 당 지도부 연일 총력 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텃밭에서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무소속 돌풍'이 상당한 탓에 당 지도부와 조직까지 총 동원돼 광주와 전남에 '울인'하고 있다.

우선 광주시장 선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당 소속의 윤장현 후보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강은미 후보에게 10% 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위기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당 지도부와 중앙당 당직자 등이 최근 광주로 총 출동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지지를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판단하고, 선거 막바지까지 시장 선거에 총력을 펼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무소속 후보 돌풍에도 긴장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광

역·기초의원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만들고, 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지도부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구 중 10곳~13곳을 박빙지역으로 보고 이곳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광주와 광양·순천·여수 등 전남 동부권 지원유세를 벌인데 이어 박지원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선거 막바지까지 도내 곳곳을 돌며 릴레이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와 이윤서 전남도당 국민안심선대위 공동위원장 등은 전남 지역 과열경쟁 지역 등을 돌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지원 유세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잘못된 공천 최대한 부각 연대·단일화로 '바람몰이'

## 무소속

당 소속인 아닌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전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당 소속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아 순식간에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리기도 하지만 무소속 후보는 이를 지켜만 봐야 한다.

특히 당 소속 후보들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등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없어 나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때문에 그동안 무소속 후보들은 연대와 단일화를 통해 맞서왔다.

이번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은 이 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 지역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과정에서 혼란과 비민주성을 보여주면서 유

력한 후보들이 대거 이탈, 무소속으로 합류하면서 당 소속 후보 못지 않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는 이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현역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부는 무소속 바람도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소속 강은미 광주시장 후보 측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 연대가 집단적으로 정밀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현 대표체제의 오만을 심판해 이 한다는 시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에서 이는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어느 선거 때부터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에서 나타났던 '물기마 2번'과 같은 분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28일 광주 서구 농성동 시립미술관 상록분관 부근을 돌며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군수 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구충곤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26일 광덕지구에서 쓰레기줍기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난 27일 한 무소속 후보 운동원들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기초 4번 지지를 부탁하며 울동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6·4 지방선거 현장

### 기초단체장·지방의원

#### 노희용 "남광주·대인·산수시장 적극 지원"

노희용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28일 남광주·대인 시장을 방문해 재래시장 지원 정책을 밝혔다. 노희용은 "대인시장은 3년간 20억원을 투입해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고, 남광주시장은 '남광주역사 테마파크'를 비롯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산수시장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훈 "나주를 생활체육도시로 육성"

임성훈 무소속 나주시장 후보는 28일 시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생활체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나주의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영산강 인근에 신설되는 야구장과 축구장, 게이트볼, 양궁장 등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형준 "복지사각 지대 해소 프로젝트 진행"

전형준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28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특별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월남 참전용사 등 자칫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육, 취업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택 "직접민주주의 실현 시민발언 제도 신설"

임택 광주 동구(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28일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에서 시민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그동안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이름을 빌려 형식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시민들의 의회 발언은 집행부에게도 책임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은미 "숲·환경 활동가 86명이 지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도시숲·환경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86명이 28일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제4선거구)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숲을 품고 있는 광주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열정과 활동력을 갖춘 환경전문가인 강은미 시의원의 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수영 "양동 발산마을에 예술인촌 건립"

김수영 무소속 광주 서구(선거구) 구의원 후보는 28일 양동, 화정동, 농성동 내 경로당, 상가, 사회 단체 등을 방문해 "도시 공동화로 공·폐기가 수두룩한 양 3동 발산마을에 2016년까지 예술인촌을 건립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양동시장 일대를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한편 매년 '광명문화축제'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축 원룸 (전대상대 2분 거리)**

- 용봉지구, 미래도 APT 입구 코너
- 신축 4층, 룸 21개
- 1층 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 엘리베이터 완비, 전체 대리석 시공
- 월수입 900만원(년 1억800만)
- 매가 11억5천(보 1억, 웅 4억)

**★신축 원룸 (전대후문 2분 거리)**

- 흥중동, 신축 4층, 룸 12개
- 1층 점포 1칸, 원룸 10개, 4층 주택 1개
- 월수입 450만원, 매가 6억5천

**★수완지구 상가(3층)**

- 신한은행 뒤, 모아엘가 APT 상가 맞은편
- 주위 6000세대 APT 밀집
- 4층 건물중 3층, 85P
- 월수익 200만(년 2400만 수익)
- 매가 3억5천(웅 2억5천, 보 3천)

**★나주 이창동 원룸(4층)**

- 룸 19개, 월수익 570만
- 매가 4억2천(웅 1억, 보 3천만)

**★첨단지구 상가 2층, 62P**

- 부영 APT 맞은편, 오션스파 2층
- 월수입 80만(년 1760만)
- 매가 1억7천(웅 9천, 보 1천)

**★원룸형 오피스텔(쌍촌동)**

- 윤천역 1번 출구 3분거리
- 원룸(10P)-매가 3400만(보 200만 월 27만, 웅 1천)
- 원룸(11P)-매가 3500만(보 200만 월 27만, 웅 1천)

원룸,상가,오피스텔 매매 (주)대신 010-6670-9800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남 : 45세이하, 사무 및 기타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여 : 45세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급여는 상담후 결정